

주일에배
오전 (1부) 7시30분
오전 (2부) 7시30분
오전 (3부) 10시
오전 (4부) 12시
금요일 (1부) 18시30분

서울 교회 1600-0688
장소: 강서구 화곡동 KBS 88체육관

Jesus Centered News

예수중심교회

2014년 7월 6일 (제749호)

주일에배
오전 (1부) 7시30분
오전 (2부) 10시
오전 (3부) 12시
저녁에배 7시30분
수요일에배 (저녁) 8시

인천 교회 0321 763-9191
장소: 인천시 서구 가좌동 472번지

(서울) 서울시 용산구 용산우체국 사서함 37호 Tel. 1600-0688, 02)533-9191 Fax. 02)592-9191 (인천) 인천시 서구 가좌동 472번지 Tel. 032)763-9191 Fax. 032)575-5730 http://www.jcc.tv (월요일 예배 위치 및 인터넷 생방송)



홍 우 칼럼

간접자본이란?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의 것임이라”(고전3:21). 이 말씀은 만물과 사람은 자랑의 대상이 아니고, 사랑과 쓰임의 대상이라는 것이다.

나는 ‘지렛대의 원리’를 좋아한다. 무거운 것도 지렛대를 사용하면 쉽게 들 수 있다. 이는 ‘지혜가 제일’이라는 하나님 말씀과 상통하고, 달리 표현하면 간접자본을 이용하는 것이다. 만물과 만인이 나를 위해 지음을 받았다면, 그것을 활용하는 것이 지혜이기 때문이다.

지금 기도원에서 교육전도사들과 거의 8주 동안 공사를 하고 있는데, 그들이 짊어지고 힘으로만 한다면 그들도 지치고 일의 진척도 없을 것이다. 그러나 지게차나 굴착기 등 기계와 기구를 사용하거나 백 명분의 일도 금방 해낸다.

요즘 관광산업이 대세인데, 이야말로 간접자본을 활용하는 것이다. 조성된 아름다운 자연이 상품이 되기 때문이다. 또 나는 건축업을 하는 장로에게 “전망이 좋은 곳을 택하게. 그러면 같은 집이라도 값이 훨씬 곱세.” 라고 귀띔해준 바 있다. 그리고 우리 신문을 만드는 편집실에도 ‘사람을 활용하라’고 늘 당부한다. 그러면 세계적 신문이 될 거라고. 이것이 지혜다.

목회 30년 동안 나는 이 지렛대 원리를 사용했다. 내가 오를 수 없을 때 그에 맞는 사람을 사다리 삼았고, 내가 들 수 없을 때는 합당한 자를 지렛대 삼았다.

그러나 뭐니뭐니해도 가장 큰 간접자본은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그 분은 ‘나를 활용하라, 나로 하여금 일하게 하라’고 말씀하신다. 그 분을 움직이면 모든 것에 거칠게 없고, 가장 빠르고, 가장 좋고, 가장 선한 결과를 낳는다.

나는 모든 자가 지혜의 눈, 간접자본을 볼 수 있는 눈이 뜨기를 바란다.

-기도원 공사 중에-

알고도 안 하는 것이 문제다

현재 계속 진행 중인 기도원 개보수공사는 교단의 여러 교역자들과 교육전도사, 기도원 및 본부 직원들, 그리고 바쁜 생업 중에도 시간을 쪼개 기도원을 찾아준 성도 여러분의 헌신과 봉사로 아름답게 마무리 되어가고 있다. 다시 한 번 주님의 이름으로 감사를 드린다.

목사님은 8주 동안 계속되고 있는 기도원 개보수공사를 직접 진두지휘하시며 그동안 느낀 소회를 이렇게 말씀하셨다. “8주 동안 우리 교역자들과 직원들, 교육전도사들을 데리고 일하며 그들의 모습에서 참 많은 걸 느낀다. 내가 늘 주장하는 것이 매사 못하는 것이 아니라 안 하기 때문에 못한다는 것이었다. 영어를

가 알면서도 행치 않아서 하지 못하는 것이다. 따라서 몰라서 못하는 자는 가르치면 되거니와 알고도 행치 않는 게으른 자는 어찌 해볼 도리가 없다.

꼭 조금 안다는 자들이 더 문제다. ‘뭘 해라, 해보자’ 하면 조금 안다는 알량한 잣대로 이 핑계 저 핑계 대며 할 수 없는 일이라고 나쁘다. 그래서 백지에 글을 쓰는 게 낫다. 어린 시절, 틀린 답을 고친다고 지우개로 지우다보면 종이도 찢어지고, 글씨도 번져 불청사납게 된 경험에 있을 줄 안다. 요즘 컴퓨터로 쓴 글이야 고치면 표시도 안 난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아예 처음부터 새로 쓰는 게 쉽지 조금씩 고치는 것이 훨씬 어려운

변화시키기란 몹시 어려운 일이다. 고린도후서 10장 4절에 하나님 앞을 가로막는 견고한 진을 파해야 한다. 하나님 앞에 세상의 문화적 지식이나 이리다 해봤다는 식의 오만한 자는 백해무익이다. 절대로 그런 자를 써서는 안 된다. 차라리 안 하는 자보다 못한다고 하는 자를 가르쳐 생각을 바꿔주고, 소망을 주며 독려하면 훨씬 큰 효과를 낳는다. 우리 교육전도사들이 내 옆에서 일하며 많은 것을 배운다고 더 불려달라고 말했을 때, 그들에게 소망을 주며 가르쳐줬더니 공사의 문외한이었던 그들이 8주 만에 각종 중장비를 다루며 능수능란하게 일을 처리해가는 모습을 본다.



기도원 개보수 공사 현장

안 하기 때문에 못하는 것이요, 운동을 안 하기 때문에 건강을 잃는 것이요,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시험에 들고, 귀신을 쫓지 않기 때문에 병과 저주와 고통 속에 종노릇하는 것이다. 곧 하면 되는 데 안 하기 때문이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능치 못할 일이 없는(막9:29)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예수가 하신 일을 할 뿐 아니라 그보다 더 큰 일도 할 수 있는(요14:12) 존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못하는 것은 진정 안 하기 때문이다. 우리 속에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무엇이든 불가능이 없는 잠재력이 숨 쉬고 있건만, 이를 몰라서, 믿지 못해서, 나

아 일이다. 정치하는 사람들이 혁명보다 개혁이 훨씬 어렵다고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혁명이야 따라오지 않는 세력일랑 강고리 제거하고 기초부터 새로 시작하기에 초기의 기세만 잡으면 일사천리로 나갈 수 있다. 그러나 개혁은 기득권을 지키려는 세력, 이미 공고해진 의식들을 조정하고 설득하며 나가려니 그저 험난할 뿐이다. 또한 새로 건축하는 것보다 개보수하는 것이 돈도 더 들고 훨씬 힘들다. 지금 진행하고 있는 기도원 개보수공사가 표시도 없이 힘만 드는 이유다. 백지 같은 어린 아이를 가르치는 게 낫지 이미 목이 굳어버린 성인을 가르쳐

내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생각으로, 곧 할 수 없다는 생각에서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생각으로 바뀌어 한다.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무엇이든 할 수 있는 것이다. 내가 기도원 입구 벽면에 ‘예수를 믿으면 예수가 하신 일 내가 하고 예수보다 더 큰 일도 한다’고 요한복음 14장 12절 말씀을 크게 써 붙인 까닭을 깨닫기 바란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비밀만 깨닫는다면 ‘복받는 한 해가 되자’고 선포한 그 믿음대로 모두가 하나님에 예비하신 복을 넘치도록 받게 되리라 확신한다.”

한은택 전도사

henry8829@naver.com



수영장 비계 설치공사



호텔 외벽 안전 보강공사



숙소 지붕 마감공사



장성한 자는 뭘 할까 생각하며 산다

이초석 목사 주일설교(엡6:1~11)

“산이 나무를 위해 존재합니까? 나무가 산을 위해 존재합니까?”

이 질문에 답은 이렇습니다. 나무가 어릴 적에는 산이 나무를 위해 존재합니다. 산이 나무에게 비옥한 토양과 자양분을 제공해줘서 잘 자라도록 하는 겁니다. 그러나 나무가 장성하여 참대해지면 나무가 산을 위해 존재하게 됩니다. 뿌리를 깊게 내리고 잎이 무성하여져서 산사태도 막아주고, 울창한 숲도 만들어 새들과 동물들이 깃들게 합니다.

당신은 장성한 자입니까? 그렇다면 당신도 그래야 합니다. 어릴 때는 부모님의 보살핌을 받는 어린 나무였다면, 이제는 부모의 버팀목이 되고, 바람막이가 되고, 힘이 되어 드리는 큰 나무여야 합니다. 그런데 요즘 ‘썩거루족’이라는 신종어가 대변하듯, 명치는 커지고 나이는 들었는데도 여전히 부모님에게 의존해서 사는 자들이 적지 않습니다. 어미 썩거루의 육아남 속에 들어있는 새끼처럼 말입니다. 그나마 썩거루족은 나은 편입니다. 늙은 부모를 방치하는 자식, 집에 모시기 싫어서 양로원에 부모를 위탁하는 자식, 입에 올리기도 싫지만 부모를 버리고 죽이기도 하는 자식... 개, 돼지 같은 놈들이 많습니다.

왜 그런 줄 압니까? 기본교육이 안 되었기 때문입니다. 인생의 기본교육은 하나님 말씀으로 양육하는 것인데, 세상 교육에만 열을 올리다 보니 이런 꼴이 나는 것입니다. 공부 잘해서 판사, 검사도, 해외유학으로 박사 주렁주렁 달면 뭐 합니까? 제 낳은 부모도 모르는데, 기독교의 기본윤리는 십계명입니다. 십

의 계명을 잘 저버리는도다 모세는 네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또 아비나 어미를 훼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가로되 사람이 아비에게나 어미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거니와 만만이라 하고 제 아비나 어미에게 다시 아무 것이라도 하여 드리기를 허하지 아니하여 너희의 전한 유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또 이같은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 하시고 무리를 다시 불러 이르시되 너희는 내 말을 듣고 깨달으라”(막7:9-14)

예수님 당시 랍비들은 ‘고르반’이라는 명목으로 부모공양의 책임을 면제받았습다. ‘고르

여러분, 돈 벌러 뛰어다니지 말고, 부모에게 효도하세요. 오래 살려고 건강식품 사먹지 말고 효도하세요.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의 하나님 나 어호와가 네게 준 땅에서 네 생명이 길리라”(출20:12).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계명이니 이는 네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엡6:2-3).

십자가에 달리신 후에 예수님은 어머니인 마리아를 그의 제자 요한에게 부탁하

나(요19:27). 그 후로 요한은 마리아를 어머니로 모시고 여생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의 제자 중 가장 오래 살았고, 밧모 섬에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축복을 받았



총회장 이초석 목사

반 ‘은 하나 남게 재산’을 현납하겠다고 서약한 것인데,

서약만 하면 그 재산을 언제 바치든지 관계없이 부모 공양을 면제받았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어느 불효자식이 부모에게 가서 ‘나의 재산은 다 고르반 되었다’고 공식적으로 말하고는 부모를 섬기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것이 묵인되었다는 거지요. 그러나 예수님은 이 유전을 미끼로 부모공양에 소홀한 랍비들을 나무라시며 그들을 ‘의식하는 자’라 칭하시고,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라고 통탄해하셨습니다.

요즘 ‘신종 고르반’이 많습니다. 하나님의 일 한다고 부모를 나 몰라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시간이 없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없는 것입니다. 부모님 섬김 방법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전화 드리는데 몇 분이 걸립니까? 용돈도 인터넷뱅킹으로 줍니다. 다 핑계지요. 그런 자를 향해 하나님은 보이는 부모도 공경 못하면서 어떻게 보이지 않는 나를 공경할 수 있느냐고 질타하십니다(요일 4:20).

리야 산에서 자신을 번제로 드리려 할 때, 충분히 도망갈 수 있는 기회와 있었지만 아브라함에게 순종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은 수양을 준 비하사 이삭을 건져줬을 뿐 아니라 어디를 가나 백배나 더 좋은 것으로 주셔서 그의 생애를 순탄케 하셨습니다. 또 이방여인으로 유다지파인 나옴의 아들과 결혼한 토티 남편이 죽자 나옴을 따라 남편의 고향 베들레헴으로 와서 시어머니를 섬겼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보아사라는 남편을 주었고, 다윗의 선조요, 예수님의 족보에 오르는 놀라운 축복을 주셨습니다. 예수님도 십자가를 피하고 싶은 자신의 뜻을 접고 ‘그러나 아버지의 뜻이거든 그리 하옵소서’라고 고백하고 십자가를 지심으로 영광의 보좌에 앉으셨습니다.

저는 장사익의 ‘꽃구경’이라는 노래를 좋아합니다. 내용은 나이든 어머니를 고려장 하러 가는 장면인데, 그런 순간에도 자식을 걱정하는 어머니의 사랑 때문

에 저는 많이 읊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어머니 꽃 구경가요/ 제 등에 얹혀 꽃구경 가요/ 세상이 온통 꽃 핀 봄날/ 어머니는 좋아라고 아들 등에 얹혔네/ 마을을 지나고 산길을 지나고 산자락에 휘감겨 숲길에 걸터지자/ 아이구 머니나 어머니는 그만 말을 잃더니/ 꽃

부모를 공경하면 이 땅에서 장수한다

구경 봄구경 눈 감아 버리더니/ 한 움큼씩 한 움큼씩 숲길을 따서 가는 길 뒤에다 뿌리며 가네/ 어머니 지금 뭐하신펬요 숲길을 뿌려서 뭐하신펬요/ 아들이 아들이 내 아들이/ 너 혼자 내려갈 길 걱정이구나/ 길 잃고 헤맬까 걱정이구나.” 이것이 부모 마음입니다. 이런 부모님이 집이 된다고, 병에 걸렸다고, 차에 걸려 정신이 오락가락 한다고 버리고 때립니까? 그러는 저는 안 늙는답니까? 나중에 차에 걸리지 말란 법 있답니까?

살아계실 때 효도하세요. 늙으신 부모님의 바람막이가 되어주세요. 편히 쉴 수 있는 큰 나무가 되어주세요. ‘내일 하지’ 그러지 마세요. 노인네들은 ‘밤새 안녕’입니다. 내일을 장담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오늘 부모님께 전화 드리고, 용돈도 넉넉히 드리고, 자주 찾아뵙고 그러세요.

더불어 여러분은 장성한 믿음을 가진 교회의 중추입니다. 이제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 교회를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 생각해야 합니다. 어린 믿음을 가진 자를 돌보고, 여기저기 교회일도 살피고, 나가 전도도 하고 말입니다.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는 장성한 자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회사에서도 그렇습니다. 신임 때에야 어쩔 수 없지만, 경력이 쌓이다 보면 스스로 알아서 회사 일을 척척 해내는 사람이 되어야 인정받아 승진도 하게 되고, 경영진에 들어가게 됩니다.

장성한 자는 나라가, 교회가, 회사가, 부모가 무엇을 해줄 것인가 하기 전에 내가 먼저 그들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세상도, 하나님도, 부모도 그런 자를 사랑하고, 그런 자에게 모든 것을 맡깁니다. 이제 산을 위해 사는 큰 나무가 됩시다. 할렐루야!

자식이 봉양하고자 하나 부모는 기다려주지 않는다

계명은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로 구성된 10가지 계명인데,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의 첫 계명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는 것’이고, 사람과의 관계 첫 계명, 곧 인륜의 첫 계명은 ‘네 부모를 공경하라’입니다. 신앙의 기본이 하나님만을 섬기는 것이라면, 인간 도리의 기본은 부모를 섬기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이 기본을 어릴 때부터 가르쳐야 늙어서 눈물 항아리 안 됩니다.

그런데 문제가 또 있습니다. 교회에는 열심히 다니면서 부모는 등한시하는 자들 말입니다. 교회 일이 바빠서 부모 섬길 시간이, 여유가 없나요? 열핏 들으면 합당한 듯 들립니다. 그러나 No! 잘못된 겁니다. 그런 자는 마치 마가복음 7장에 나오는 ‘고르반’으로 핑계를 대는 공경할 수 있는 자들입니다.

“너희가 너희 유전을 지키려고 하나님

153 선교 및 구제 후원금 안내

ARS (5,000원)

(060)700-0688

은행 계좌 안내

농협 1379-01-001903

국민은행

695001-01-122494

예금주: 예수중심교회

::객원칼럼::

::생각해봅시다::

진정 최선을 다했는가?

한 소년이 큰 바위를 옮기려고 애를 쓰고 있었다. 밀어보고 끌어보고 당겨보아도 바위는 꿈쩍도 하지 않았다. 소년은 바위를 옮기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다. 그때 소년을 지켜보고 있던 아버지가 다가왔다. “무엇을 하고 있지?” “아버지, 저는 저 바위를 옮기려는데 여러 방법을 써 봤지만 옮길 수가 없어요. 최선을 다했거든요.” 그때 아버지는 말했다. “아니란다. 너는 최선을 다하지 않았어. 왜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구하지 않았니? 분명히 너를 도와줄 사람이 있을 텐데 말이지.” 아버지는 아들에게 타인의 도움을 구하는 것 역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라는 것을 일깨워 주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누군가에게 도움을 구할 수 있다는 것을 자주 잊고 산다. 도움을 구하는 것 역시 우리가 목표를 향해 갈 때, 선택할 수 있는 다양한 선택지 중 하나라는 것을 잊어버린다.

모든 것을 혼자 감내하려다 쓰러지는 이들을 여럿 보았다. 나는 이들을 ‘독학병 환자’라고 말하고 싶다. 남편 친구 중에 헬스장을 운영하는 친구가 있다. 그가 들려준 이야기다. 그 분이 말하길 “특히 트레이닝에 대한 한국의 독학병은 유별합니다. 제가 있는 곳은 달리고, 뛰고, 들어올리는 사람들이 땀을 흘리는 곳인데, 다들 근력운동과 유산소운동에 열심히 합니다. 사실 근력운동과 유산소운동만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가만히 보면 운동하는 사람 중 제대로 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아요. 그래서 몇몇 회원들의 동작을 교정해주려고 다가가면 “혼자 할게

요.”라며 눈을 피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괜찮아요.”라며 자리를 뜨는 회원도 있어요. 잘못된 자세로 잘못된 운동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데도 도와줄 수가 없어서 안타까울 때가 있어요.”라고 그는 답답한 심정을 토로했다.

혼자서 꾸준히 땀을 흘려도 성과가 나지 않을 때, 슬금슬금 자괴감이 찾아온다. 그래서 못나고 부족해서 같은 시간과 같은 노력을 들이고도 성공하지 못했다고 스스로를 탓한다. 그리고 손을 놔 버린다. 언어공부, 다이어트, 기도... 그러나 생각해보자. 정말 최선을 다했는가? 남의 도움을 받는 것 역시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해 본 적은 없는가?

열심히 했는데도 성과가 나지 않는다면, 노력의 문제가 아니라 방법의 문제가 아닐까 다시 한 번 생각해봐야 한다. 그럴 때 잘못된 방법을 짚어줄 사람을 찾아 도움을 구한다면, 포기과 실패의 악순환을 끊을 수 있게 될 것이다.

나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한다. 기도를 해도 응답이 없거나 혹은 기도할 때 집중이 되지 않아서 중언부언하게 될 때, 인생의 선배들, 즉 목사님이나 전도사님께 조언을 구한다면 쉽게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고린도전서 10장에도 바른 길을 인도해줄 수 있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었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은가. 진정 어떤 일이 잘 풀리지 않을 때, 예수님이야말로 우리가 반드시 의지해야 할 신앙 안내자이시며 트레이너가 되심을 확인해야 할 것이다.

김영숙

jesus_sook@naver.com

메모하는 습관!

어떤 과학자가 아인슈타인에게 물었습니다. “박사님의 연구용 실험장비는 무엇입니까?” 그러자 아인슈타인은 만년필을 꺼내어 보여주었습니다. 아인슈타인의 행동에 살짝 당황한 과학자가 다시 물었습니다. “그러면 가장 중요한 과학 장비는 무엇입니까?” 그러자 그는 책상 옆에 있던 휴지통을 가리키면서 “바로 저것이요! 나는 일상생활 중 머릿속에 뭔가가 떠오르면 잊어버리지 않도록 메모하고 골똘하게 생각하지요. 잘 갖춰진 실험실보다는 떠오르는 생각을 적을 수 있는 만년필과 메모지, 그리고 버릴 수 있는 휴지통만 있으면 됩니다.” 라고 웃으며 말했다고 합니다.

메모, 말 그대로 간단히 적는 행위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엄청난 효과와 결과를 낳습니다. 제너럴일렉트릭사(GE)가 단행했던 엄청난 사업 구조조정의 기본 방향도 책 웰치 회장이 식사 도중 갑자기 냅킨에 그린 한 장의 그림이 바탕

이 된 것이라고 합니다.

‘적자생존’이란 말을 들어봤습니까? ‘적은 사람이 살아남는다’는 말입니다. 성공한 사람들의 공통점 중의 하나가 바로 메모하는 습관입니다. 어느 순간 떠오르는 생각이나 아이디어를 메모해 둔다면, 실수하지 않을 것이고, 그것이 나중에 재산이 될 것입니다. 또한 하루를 메모하는 것도 좋습니다. 바로 일기지요. 총회장 목사님을 통해 솔하게 권유받는 것이 일기입니다. 일기를 쓰면 불평하지 않게 되고, 감사를 잊지 않게 된다고 하셨습니다.

세계 4대 해전 중의 하나인 한산도해전, 적함 59척을 격파한 한산도해전이 123척을 격파한 명량대첩보다 더 유명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이순신 장군이 쓴 ‘난중일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작은 일부터 메모하는 습관을 길러보세요. 그것에서부터 창조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예수중심편집실

너의 상상력을 제한하지 말라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마가복음 9장 23절)

::To Be Succeed::

시간 관리, 어떻게 하고 있나요?

프랑스의 대표적인 계몽 사상가인 볼테르는 이런 질문을 했다.

“세상에서 제일 길면서도 제일 짧고, 가장 느리면서도 가장 빠르며, 아주 짧게 쪼갤 수 있으면서도 제일 크고, 가장 하찮게 여겨지면서도 잃어버리면 가장 아쉬운 것은 무엇일까?” 정답은 바로 ‘시간’이다.

미국 건국의 아버지로 100달러 지폐의 주인공이 될 만큼 미국인들의 사랑과 존경을 한 몸에 받는 벤자민 프랭클린이 서점을 운영할 때의 일화는 유명하다.

한 손님이 2달러짜리 책을 깎아달라고 몇 차례 요구하자 그는 시간이 지날수록 2달러 50센트, 3달러로 계속해서 책값을 올렸다. “아니, 갈수록 올라가는 책값도 다 있습니까?” 라고 의아해하는 손님에게 그는 이렇게 대답했다. “그렇습니다. 돈보다 시간이 더 귀하기 때문에 시간을 갈수록 책값을 더 받아야 합니다.” 프랭클린의 뜻을 알아차린 손님이 3달러를 내놓자 그는 “제 뜻을 알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정가로 드리겠습니다.” 하며 1달러를 돌려주었다고 한다. 프랭클린이 시간을 얼마나 소중히 여겼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이야기다.

대한민국 최초의 안과 의사이자 한글 사랑으로 잘 알려진 공병우 박사 역시 5분 이상 머리를 깎는 이발소는 가지 않고, 아무리 귀한 손님이라도 선악을 하지 않고 방문하면 돌려보내는 등 유별나리만큼 시간 관리에 민감했다. 그러면서도 머리에겐 패배를 받는 대신 악수나 한번 하자며 절차를 간소화하고, 나라가 어려운데 옷치장에 시간을 낭비할 수 없다며 한복을 입지 않았던 그였다.

그런가하면 조선 후기 실학자이면서 발명가였던 다산 정약용은 귀양살이 시절을 분노와 원망으로 흘려버리지 않고, 부족한 화업에 더욱 매진하여 경세유표, 목민심서, 흙흙신서와 같이 수많은 불후의 명저(名著)들을 남겼고, 흑인 인권 운동에 앞장선 남아공의 흑인 대통령 벨슨 만델라 역시 옥중에서도 매일 동일한 시간에 운동하고 시간을 쪼개 독서를 한 후, 동료들과 토론하는 등 후일을 철저히 대비하는 시간으로 활용했다.

시간을 관리함에 있어 주의해야 할 점이 있다면, 무작정 시간에 쫓겨 바쁘게 살기보다는 주어진 시간을 지배함으로써 재창조된 시간을 누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실제로 시간 활용을 잘하는 이들은

여유가 있다. 또 한 가지, ‘우선순위’를 분명히 해야 한다. 특히 우리 믿는 자들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 그 분께 드리는 시간을 세상에서 보내는 다른 어떤 시간보다 최우선으로 둘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 다른 모든 일을 주관하시고 책임져주시를 직접 경험하고 이를 믿는 신앙을 가져야 한다. 다니엘은 왕 이외에 다른 신을 섬기면 죽을 수밖에 없는 절체절명의 위기 가운데서도 하루에 세 번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0순위로 삼았고, 이를 보신 하나님은 사자 굴에서도 그와 함께하시고 지키시어 당신의 이름 앞에 왕을 비롯한 온 나라가 무릎 꿇게 하셨다.

우리 모두에게 똑같이 주어지는 한 번 뿐인 인생, 그리고 하루하루. 이 시간을 하늘나라에 소망을 두고 차곡차곡 쌓을 쌓는 기회로 만들 것인가, 아니면 이 땅을 떠날 때 돌이킬 수 없는 후회의 시간으로 남길 것인가? 주어진 시간을 지배할 것인가, 아니면 시간에 쫓겨 살 것인가? 이것은 당신이 결정해야 할 몫이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렘5:16).

이국진

joyful_jina@hanmail.net



귀를 기울이세요

요즘 남미의 브라질에서는 월드컵이 한창입니다. 우리나라는 아쉽게도 16강 진출에 실패했지만, 최선을 다해 땀 흘린 선수들과 감독 및 스태프들에게 아낌없는 박수를 보냅니다. 많은 국민들이 이른 새벽에도 잠을 못 이루 채 우리 국가대표 팀의 선전을 기원했지만, 실망스러운 경기 결과에 대해서는 안타까워하며 아쉬움을 달래야 했습니다.

지난 월드컵 국가대표팀이 고된 여정을 마치고 귀국했는데, 이 때 선수들을 맞이한 것은 축구 팬들과 국민들의 따뜻한 환영이 아닌 물상식 한몇몇 축구 팬들의 불합당한 행동이었습니다. 귀국한 선수들이 들어오는 입구에 “한국 축구는 죽었다.”라는 글귀가 적힌 현수막을 들고 있는 것도 모자라서, 한 남성이 “엠티나 먹어라.”라고 비난하면서 엠티로 된 사람을 국가대표팀 선수들에게 던진 겁니다. 똑같이 16강 진출에 실패한 이웃나라 일본의 경우 국가대표팀이 귀국할 때 천 명 정도의 인파가 몰려들어 환영한 것과는 극명하게 대조적인 광경이었지요.

월드컵이 이긴 팀에게나 진 팀에게나 축재할 수 있는 이유는 경쟁당면하게 승부하고 주어진 결과에 승복할 줄 아는 패러플레이의 정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믿음에는 덕이 있어야 하는데, 이 덕은 온유함과 관용의 미덕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고 분을 내거나 비난을 일삼는다면, 어느 누가 그의 믿음을 따라가려 하겠습니까?

신혁주 전도사

blessedmb@naver.com

::성경에서 배운다::

::참된 깨달음::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태국의 한 광고가 세계인의 마음을 울리고 있다. 광고는 평범한 한 청년의 이야기로 그는 길을 지나다 노점상 아주머니의 수레를 함께 밀어주고, 길 잃은 개에게 자신의 점심을 나눠주며, 아이의 교육을 위해 구걸하는 모녀에게 자신의 지갑에 얼마 남지 않은 돈을 기꺼이 기부한다. 이런 그의 모습을 주변사람들은 쓸데없는 오지랖이라며 고개를 저는다. 매일 그가 이런 선한 일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것이 과연 무엇이나는 것이다. 물론 그가 얻는 것은 없어 보였다. 더 부자가 되지도 못했고, TV에 나와 유명해지지도 않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것, 그래서 더 값진 것을 얻을 수 있었다. 그가 다시금 구걸하는 모녀에게 기부하기 위해 찾아갔을 때, 소녀는 교복을 입은 채 환하게 웃고 있었고, 자신의 먹은 것을 나눠준 게는 그의 뒤를 따르기 시작했으며, 노점상 아주머니는 그의 온정으로부터 생활의 활력을 얻어 신바람나게 장사를 할 수 있었다. 그가 얻은 것

은 다른 사람들이 부러워할만한 돈과 명예는 아니지만, 오히려 돈을 주고도 살 수 없는 것, 즉 행복을 획득하고 사랑을 느끼며 세상을 더 아름답게 만드는 것이었다. 성경 속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보자. 어떤 율법사가 예수님께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면 무엇을 해야 하나지?' 묻는다. 이 때 예수님은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말씀을 상기시키신다. 그러자 율법사는 더욱 거만해진 태도로 묻는다. 도대체 내 이웃이 누구냐는 것이다. 그는 아마도 자신의 사랑을 받을 만한 이웃은 어느 정도 인격을 갖춘 주변의 율법사들이나 제사장 정도는 되어야 한다는 생각에 이런 질문을 했을지 모르겠다. 하지만 예수님은 역발상적 대답을 내놓으신다. '누가 그의 이웃인지?'가 아닌 '당신이 누군가의 이웃이 될 자격이 있는지?'를 물으신 것이다. 세상의 높은 지위를 가졌다고 해도 길에 쓰러진 자를 그냥 지나친 제사장

이나 레위인은 선한 이웃의 자격이 없으며, 이방민족이라 천대받지만 대가 없이 치료를 도운 사마리아인이 오히려 선한 이웃이라고 말씀하신다. 그리고 그것이 영생의 비밀이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인 것을 교훈하신다. 그러니 우리는 선한 이웃이 되기 위해 마음과 행동을 돌아봐야 한다. 그리고 되돌려 받지 못하는 선행에 마음이 지쳐올 때, 이 말씀 속에서 다시금 새 힘을 얻자! 눈에 보이는 대가를 계산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므로 선을 베푸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영원한 생명에 이르는 길이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표이니 기쁜 마음으로 기꺼이 이웃을 섬기자.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매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갈6:9-10).

하인영

renming@daum.net

로만 자입니다. 어머니 뱃속에서 열 달 동안 바깥세상의 삶을 준비했던 것처럼, 이 땅에 태어나 살아가면서 죽은 뒤의 영원한 세상을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누구든지 죽음을 피해갈 수 있는 사람은 없고, 죽은 뒤에는 심판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일을 할 때에 먼저 해야 할 일과 나중에 해도 될 일이 있는 것처럼, 우리 인생에도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시종을 알 수 없는 인생에서 영혼의 구원을 받는 것이 무엇보다도 시급한 일입니다. "주 예수님을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행16:31). 어렵지도 않은 일입니다. 차일피일 미루지 마시고 지금 예수님을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상화평 목사

sanghwapyung@hanmail.net

하나님 당신은 ...

어느 날 하루 일과를 마치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런데 30분, 40분이 지나도 기도가 되지 않고 마음이 냉랭합니다. 뭔가 문제가 있구나, 직감적으로 깨달았을 때 "그가 너라면 그러겠느냐?"는 성령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오후 늦게 중환자실에 계신 권사님을 위해 기도해드리고 왔는데, 건성으로 수박 겉핥기식의 기도를 해드린 걸 책망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중환자실에 누워있는 그가 너라면 너는 그런 기도만길 원했겠느냐?"

그날 회개한 후, 저는 권사님을 위해 다시 기도했습니다. 그 분이 저였다면 깨어나길 원했을 것이고, 고침받길 원했겠지요. 저는 제가 받고 싶은 것을 구하고 또 구했습니다. 이 일로 인해 주님은 가식과 외식으로 더럽혀진 제 심령을 정화해주셨습니다. 이 일로 저는 진실만이 진실된 하나님을 움직일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시편 145편 18절에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 도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기도를 외면하신 이유입니다.

또한 마태복음 7장 12절에는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었도 선지자니라" 라고도 하셨습니다. 이는 사람들이 너에게 행해주기를 원하는 것들을 너희가 저에게 행하라는 말씀입니다. 곧 기도의 응답은 섬김과 대접에 있음을 말씀하십니다.

진실은 만국공통의 언어요, 화폐입니다. 진실로 기도하고, 진실로 사람을 대하고, 진실된 마음으로 모든 일을 행함시다. 그런 당신에게 돌아올 대가는 진실된 열매일 것입니다. 김정옥 전도사

jcc0115@naver.com

Good News

영국의 유명한 성화 작가 윌리엄 헨트가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그림을 그리러 야외수업을 나갔습니다. 그 날 아이들이 그려야 할 그림의 제목은 '석양'이었습니다. 아이들은 흠뻑 젖어 저마다 구상한 것을 도화지에 그렸습니다. 그런데 한 아이가 언덕 위에 있는 낮은 오두막집을 아주 세밀하게 그리고 있었습니다. 윌리엄 헨트가 그 아이에게 다가가 말했습니다. "아, 그 낮은 오두막집을 그리는데 그렇게 많은 시간을 사용하면 석양은 언제 그릴 수 있겠니?"

이와 마찬가지로 많은 사람들이 가장 중요한 것을 빠뜨려버리고 엉뚱한 것에 몰

입하여 시간을 허비하며 살아가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현대인들의 가장 큰 특징 중의 하나가 '바쁘다'는 것입니다.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모두가 무엇인가 쫓겨 가는 사람처럼 분주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바쁜 일을 때문에 중요한 일을 놓쳐 버리고 사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우리 인생에서 무엇이 중요한 일일까요? 많은 돈을 벌어서 부자가 되고, 권력과 명예를 얻어 명성이 높아지는 것을 꿈꾸며 분주하게 달려가지만, 취하고 나면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다는 솔로몬 왕의 심정이 어떠하였는지 공감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인생은 일장춘몽,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존재입니다.

책어져 없어질 육신을 위하여 살지 말고, 영혼의 때를 준비하는 자가 참으로 지혜

소신 있는 삶의 결과

수년 전, 오토바이 폭주와 패락, 담배와 술에 찌들어 살아가는 한 녀석이 편지 한 장을 들고는 찾아왔습니다. 내용인즉 자기는 19년 세월을 살면서 자기의 미래나 인생에 대해서 생각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으며, 공부를 제외한 모든 것을 다 해봤으니 선생님이 나에게 공부를 시켜주실 수 있느냐는 진심이 담긴 글이었습니다.

그 시절, 제자 사랑의 열기가 남달리 뜨거웠던 나는, 그날 이 후부터 그 아이의 모질고 독한 선생으로 학습지도를 하고 동시에 때로는 이혼하신 부모님을 대신하여 엄마의 역할도 해주었다. 그 아이와 함께 고3이라는 중요한 시기를 함께 견뎌낸 것이다. 물론 그 녀석도 소신 있게 대학진학이라는 목표를 향해 열심히 최선을 다하며 눈물겨운 노력을 해주었다. 결과는 말할 것도 없이 우수한 성적으로 좋은 대학에 입학하고 유학도 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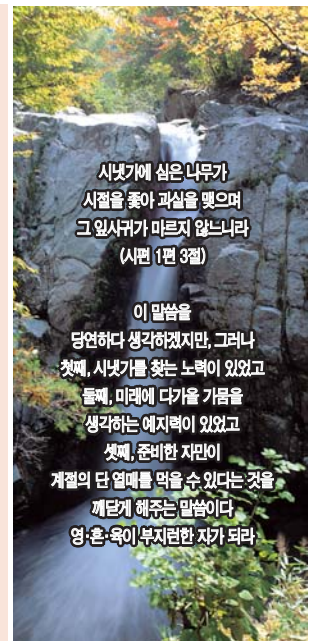
녀와서, 지금은 금융기관에서 일하며 많은 젊은이들의 부러움을 받는 아름다운 인생을 살고 있다.

그 아이와 비슷한 다른 아이가 또 있다. 학창 시절을 방황하며 가솔했던 나의 조카이다. 오래 전, 어렵게 연락이 닿은 조카에게 꿈이 뭐냐고 물었더니 개그맨이 되는 것이라고 했다. 이런저런 잔소리를 생략한 채, 조카의 손에 돈을 쥐어 주고 대학로에서 한 달 동안 연극을 본 후 진정 너의 꿈이 개그맨이 되는 것이냐고 연기가 되는 것인지 생각해보고 결정하라고 하였다. 오랜 방황을 끝낸 조카는 독한 결심을 하여 우수한 실력으로 서울 소재 대학교 연극영화과에 합격하였다. 그러나 조카는 예전에 배우가 되겠다는 소신을 접고 연애와 방탕한 생활에 빠져 수년을 보내다가 얼마 전, 돌아온 탕자의 모습으로 다시 나타났다.

아직은 그들이 젊기에 제자와 조카 중에 어느 누구의 인생이 성공했다고 단언하기는 어렵지만, 소신 있게 인생을 찾아간 제자와 중간에 갈 길을 잃어버린 조카의 삶의 질 사이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다. 자신의 뜻을 굽히지 않고 기어이 이루어내겠다는 결의가 없었다면, 제자 녀석도 조카와 별반 다를 바 없었을 것이다. 친구와 여자와 오토바이의 유혹에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자신의 꿈과 목표를 지킨 소신 있는 자와 그렇지 아니한 자의 삶의 결과물의 차이는 하늘과 땅으로 표현해도 좋을 것이다. 두 사람의 사례를 통해서 얻은 결론은 자녀를 향한 철학과 소신을 가진 부모가 되어서, 자녀 스스로가 소신 있는 삶을 살아야 할 이유를 뚜렷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지도해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오자유

oh free@hanmail.net



사냥기에 삼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느니라
(시편 118:3)

이 말씀을
당연하다 생각하겠지만, 그러나
첫째, 사냥기를 쫓는 노력이 있었고
둘째, 미래에 다기를 기름을
생각하는 예지력이 있었고
셋째, 준비한 자원이
계절의 단 열매를 먹을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말씀이다
영·혼·육이 부지런한 자가 되라